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출장자: 원장 채 욱
2. 출장기간: 2010년 3월19일 ~ 2010년 3월23일
3. 출장지: 중국 북경
4. 출장목적: China Development Forum 2010 참석 및 토론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비고
3/19(금)	캐나다 오타와 -> 북경 도착	이동, 기자간담회 준비 등	
3/20(토)	북경 조어대(釣魚台)*	포럼의 Academic Summit, CEO Summit 참가 Press conference	오후 3시 Press conference에 참석하여 발제 및 질의응답
3/21(일)	북경 조어대(釣魚台)	포럼 참가, 질의	
3/22(월)	북경 조어대(釣魚台), 駐中 한국대사관	포럼 참가, 대사 면담	
3/23(화)	북경 -> 인천 도착	이동	

* 조어대(釣魚台)는 북경시내에 소재한 중국의 영빈관임. 영문표기는 Diaoyutai State Guesthouse.

III. 활동 내용

□ 2010년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2010) 참석

- China Development Forum은 國務院發展研究中心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의 산

하기관인 中國發展研究基金會(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에서 2000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국제컨퍼런스임.

- China Development Forum(CDF)는 3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세계 석학들이 참석하는 Academic Summit와 글로벌기업의 CEO가 참석하는 CEO Summit(3월 20일) 그리고 중국정부 각 부처의 장관 및 고위관계자, 세계적인 연구 및 금융기관, 학자들이 참석하는 본회의(3월 21~22일)로 구성되어 있음.

- 참석자 :

<외국 인사>

- o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인(Michael Spence 스탠포드大 교수, Joseph Stiglitz 컬럼비아大 교수), Masahiko Aoki 스탠포드大 교수, Dwight Perkins 하버드大 교수, Nouriel Roubini 뉴욕大 교수 등 10명의 세계적 학자 10인
- o Haruhiko Kuroda ADB 총재, Angel Gurría OECD Secretary General, John Lipsky IMF First Deputy Director 등 9인의 국제기구 및 NGOs 관계자
- o Alan Mulally(Ford Motors Co. President), Peter Voser(Royal Dutch Shell CEO), James Owens(Caterpillar Inc. Chairman), Dominic Barton (McKinsey & Company Global Managing Director), Stephan Roach(Morgan Stanley Chairman) 등 39인의 비즈니스계 인사

<중국 인사>

- 정부인사 : 리커창 부총리, 장위타이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주임, 양제츠 외교부 부장(장관에 해당), 장펑 NDRC 주임, 시에쉬런 재정부 부장, 조우성시엔 환경보호부 부장, 천더밍 상무부 부장 등 88인의 고위인사
- 기업인 : 리뤄귀 중국 수출입은행장, 웨이자푸 COSCO 그룹 총수, 차오페이시 Huaneng 그룹 회장 등 28 인
- 학자 : 후안강, 리다오쿠에이, 판강 등 30인 저명 학자
- 그 외, Lawrence J. Lau 홍콩대 총장 등 7인의 홍콩계 인사, 왕멍웨이, 천칭타이, 우징롄, 등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고위관계자 및 연구자 55인, 中國發展研究基金會의 루마이 사무총장, 탕민 부사무총장 등 4인

□ Academic Summit과 CEO Summit이 진행된 3월 20일 오후 3시 **Press Conference**에 참석하여 발제 및 질의응답을 진행

- CDF에 참석한 외국계 인사 중 10인을 대상으로 'Eyes on China, Eyes on the World'를 주제로 3차례(세션별로 3~4인의 학자가 참여)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으며 **본인은 제3세션 기자간담회에 참여**

- 참석자 : 탕민 China Development Research Foundation 부사무총장(진행자), Michael Spence(스탠포드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Lord Nicholas Stern(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교수), 채욱(KIEP 원장), 쟁

용니엔(Singapore大 동아연구소 소장)



- 본인 발제 주요 내용

- 글로벌 임밸런스가 위안화 환율 가치 평가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위안화 환율 가치 평가문제에 대한 논란은 다시 주변국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경제위기는 결국 내수확대를 통해 극복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한국 역시 국내소비를 확대시켜 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에 두 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함.
- 첫째, 중국도 국내 소비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중국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소비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사회보장제도의 시행 확대가 필요함. 신뢰할 수 있는 사회보장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미래를 대

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저축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비는 감소할 것임.

- 중국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의료, 교육, 사회보장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것임.
- 두 번째 건의 내용은 서비스업 발전의 가속화를 들 수 있음.
- 중국은 1, 2차 산업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산업구조를 전환하여야 할 것임. 현재 중국의 서비스업/GDP(%) 비중은 약 40%로서 기타 개도국의 50%, 선진국의 70% 수준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임. 참고로 한국의 경우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서비스업의 발전은 국내소비수요 확대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임. 한국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업관련 규제 완화 및 개방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단, 각종 이익단체의 저항이 있어 시행에의 어려움이 있음. 중국의 경우 서비스업 발전에 있어 더욱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자 질의

- Q1. 한중무역에서 중국의 적자 줄이는 방법은?
- Q2. 최근 광둥성에 최저 노동보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곧 광둥성의 노동력 부족, 노동비용 상승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현상이 제조업종의 이전을 초래하고 있음. 한국 역시 이러한 변화 경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의 경험에서 중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은?

- Q3. 2010년은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임. 이제 곧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될 것임. 구조조정과 성장을 동시에 해야하는 상황에서 성장 속에 복지와 민생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함. 한국의 경험에서 중국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민생을 중시하여 내수를 확대하는 측면과 노령화 사회 해결에 있어서 견해는?

- 본인 응답

Q1의 응답 : 한중간 무역불균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우선 동아시아지역의 무역구조에 대해 언급. 동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은 중국으로부터 부품소재를 수입하여 생산된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은 다시 이 제품들을 미국과 유럽 등 제3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한중간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 제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사료됨.

Q2의 응답 : 현재 한국의 일부 제조업체들은 생산 비용이 비교적 낮은 국가로 이전하고 있음. 이제 중국도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음. 중국에 제조업 기지를 보존하고 싶다면 비교적 첨단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즉,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제조업의 동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의 유도가 필요함.

Q3의 응답(1) : 중국의 성장문제에 있어 중국의 사회보장시스템의 개선은 단기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외에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인프라 건설 확대가 필요할 것임. 일례로 소비재의 유통망 건설, e-commerce의 발전 등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해내야 할 것임.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업의 발전과 시장 개방도 매우 중요함.

Q3의 응답(2) : 인구의 노령화 관련하여 한국은 2000년에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음. 한국의 인구연령구조는 일본의 인구연령구조 변천을 따라가고 있으며, 중국은 다시 한국의 인구구성 비율과 비슷하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노령화사회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퇴직 연령의 연장이며 이러한 조치는 양로비용을 확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그 밖에 이민에 대한 개방정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일본, 한국에 유입되어 젊은 인력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또한 한국인 역시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여 취업할 수 있음. 그러므로 우리 아시아지역도 EU와 같은 경제일체화 이후 노동력의 자유이동을 포함하는 구상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중국발전포럼(China Development Forum 2010) 본 회의 첫날 (3월 21일) 리커창(李克強)부총리의 기조연설, 장위타이 DRC 주임의 주제발언(제1세션)에 이어 진행된 **제2세션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질문**

- 제2세션에서 Wang Mengkui (NDRF 회장, 전 DRC 주임)사회로 Chen Deming 상무부 부장, Janamitra Devan 세계은행 부총재, Domonic Barton Mckinsey & Company Global

Managing Director가 ‘국제무역과 경제구조 조정’을 주제로 발표하였음.

- 본인은 DDA의 진전에 있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천더밍(陳德名)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의 답변을 들었음.

○ **본인 질의 내용** : DDA의 중요성은 DDA틀안에서의 무역자유화 뿐 아니라, 정비된 규제가 갖추어진 무역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데 있음. 이러한 다자 국제무역시스템이 없다면 세계 무역은 현재 상황보다 더욱 위축되었을 것임. 최근 무역관련 이슈에서 이해관계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과 미국임. 중국은 DDA의 진전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 **천더밍(陳德名)중국 상무부 부장(장관)의 답변 내용** : 중국과 미국 모두 WTO DDA 협상의 주요 멤버임. 그러나 이 협상은 양자간이 아닌 다자간의 협의로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논의되어야 할 이슈는 다음 3가지라고 할 수 있음.

첫째, 약 8년간 DDA협상에서 80%가량은 이미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 단지 이러한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지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음. 중국의 입장은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 나가는 것임.

둘째, DDA에서는 농업, 비농업, 서비스업의 3개 분야로 협상을 해오고 있음. 중국의 의견은 WTO의 농업 및 비농업관련 문안의 조건대로 협상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 아님. 우리는 다른 국가들이 다시 협상테이블로 돌아와 이미 합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음.

셋째, DDA는 진행중인 협상이며 최종적으로는 개발도상국에게 이익이 있을 것임. 협상중에는 과거 DDA협상에서 권한이 부여된 대로 준수되어야 할 것임. 즉,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음. 만약에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 따른 어려움으로 그동안 논의된 합의사항에 근거한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면 당분간 DDA 협상의 진행은 어려울 것임.

□ 駐中 한국대사 방문

- 방문일정 : 2010년 3월 22일 16:00 - 17:10
- KIEP측 방문자 : 채욱 원장, 양평섭 KIEP 북경사무소장, 이승신 KIEP 중국팀 부연구위원
- 駐中 한국대사관 참석자 : 3명
 - o 류우익 대사, 재경관, 경제참사관
- 주요 면담 내용 :
 - o 중국 대사관의 업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국관련 자료의 필요성 및 실용적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 o 중국경제의 상황 및 전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우리의 이해득실을 판단할 수 있으며 향후 대사관의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됨.
 - o KIEP 본원의 연구성과물 및 연구인력 pool을 활용한 실용적 연구 가능, KIEP 북경사무소를 통해 현안 이슈 자료 제공

<첨부 자료>

□ CHINA DEVELOPMENT FORUM 2010 프로그램

I. Academic Summit

1. Session 1: 2010-2012년 세계 경제전망 : 완만한 회복 or 더블딥?
2. Session 2: 중국 경제 성장 : 인플레이션과 자산 버블의 도전
3. Session 3: 글로벌 임팩트 : 도전과 전망

II. CEO Summit

1. Session 1 : 금융구조의 재편성 및 발전
2. Session 2 : 지속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전략
3. Session 3: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서의 기술 혁신

III. China Development Forum 2010

1. Session 1: Opening Ceremony
2. Session 2: 국제 무역과 경제 구조 개편
3. Session 3: 선행적인 재정정책의 영향과 미래 발전
4. Session 4: 중국 대기업의 세계화 : 현황 및 전망
5. Session 5: 기후변화 및 국제 공조에 대한 중국의 입장
6. Session 6: 新 글로벌 경제 질서 속 중국의 성장패턴 전환
7. Session 7: 상호 이익을 위한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 주요 내용

- 이번 포럼의 주제 : 중국과 세계경제: 성장, 조정, 협력
 - o 새로운 국제경제구조에서 세계 각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협력 방안
 - o 중국의 경제 및 산업 구조 조정 추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
- 주요 인사 발언 내용

1. OECD 사무총장 앙헬구리아 (Angel Gurría)

: 세계경제는 현재 회복 중, 손실 복구를 위해서 5~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

- 무역 보호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현상임.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신흥 경제체는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중국의 경제정책은 전 세계 경제회복의 과정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었음.
- 그러나 만약 다른 지역이 회복하지 못하고, 오직 아시아나 혹은 신흥 경제체의 추진에만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 불균형 상태를 야기할 수 있음.
- 금융위기의 미친 영향은 아직까지 존재, 첫 번째로 높은 실업률, 다음으로 금융위기가 OECD 지역 잠재적인 생산에 미친 커다란 영향, 세 번째로 금융위기가 금융시스템에 미친 영향.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년간의 손실을 복구하려면 5~10년 정도의 시간을 필요함. 더욱 빨리 회복하려면 산업 재통합이 가장 중요한 관건임. 또한 각 정부에게 너무 빠른 출구전략의 시행을 지양할 것을 요구, 다방면의 협력(경제정책 조정 및 협력)을 강조.

2.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 농촌부 부장 한준 (韓俊)

- 근로자 모집 부족의 배후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음. 연해지역 제조업의 업그레이드, 다른 하나는 연해의 제조업의 빠른 중서부로의 이전하는 것임.
- 중서부 지역 농민공의 구직 수치가 대폭 증가, 이는 중국의 중서부 지역이 빠르게 연해지역을 따라잡고 있음을 의미
- 2008년도 4분기 및 2009년도 1분기, 농민공의 급여가 급격히 감소, 연해지역의 급여와 중서부 지역의 급여 차이가 급격하게 줄어들음. 이는 왜 대량의 농민공들이 연해지역이 아닌 중서부 지역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음
- 근로자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농민공들의 구직능력의 부족, 더욱 중요한 원인은 농민공의 급여가 매우 낮고, 근로 환경 조건이 비교적 낮은데 있음.
- 중국 농촌 노동력 공급과 수요 구조의 모순이 나날이 두드러짐과 숙련된 근로자가 부족한데 있음.
- 지역적 성격이 짙은 기업의 근로자 모집이 어려운 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농민공이 시민 역할로의 전환은 대세의 향방.

3. 미국 재무부 부장관 로버트 키미트

: 개방적인 중국의 투자는 경제회복에 있어서 매우 중요

- 2010-2010년 경제는 비교적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임. 회복 속도에서 아시아는 비교적 빠를 것이며, 미국이 그 다음, 유럽은 더욱 느릴 것임.

- 개방적인 중국의 투자는 세계의 빠른 회복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함.
- 보호주의를 지지하는 문제를 강조. 회복의 동력 및 강함 정도는 각국의 관리능력 및 어떻게 보호주의를 지지할지를 결정하며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어떻게 더욱 좋은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까지 이어짐.
- 미국과 유럽이 적자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취업의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임.

4. 북경대학 부총장 海聞(하이웬)

:중국의 부동산업은 이미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임

- 더블 딥 불가능성에 대한 세 가지 이유
- 1. 지금까지 회복은 비교적 정상적.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의 회복 상태를 보았을 때 그다지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음. 약하지 않다는 것은 내려가지 않을 것임을 의미, 강하지 않다는 것은 통화 인플레이션이 위험이 아님을 의미. 따라서 정부는 과도하게 인플레이션 정책을 타격할 필요는 없음.
- 2. 경제 회복이 비교적 안정적. 미국은 2008년 말 제 4분기에 최저점에 도달. 중국 및 기타 국가는 2009년 제 1분기에 최저점에 도달. 이후 경제는 점진적으로 회복. 따라서 최저점을 지난 지 이미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회복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
- 3. 시대가 다름. 이것은 역사상 이미 나타났었던, 현대 경제 중 하나의 더블딥에 불과, 현재 각국의 정부의 이번 금융위기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민감하면서 세심함.
- 안정적인 성장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임. 안정적인 성장에도 도전

은 역시 존재.

- 첫째, 무역 마찰 및 보호주의의 시작. 특히 중미관계에 있어서 현재 무역 마찰 및 인민폐 절상에 대한 논의는 이미 양국 간 경제 방면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경제 위기 이후 국제관계의 지위는 상대적인 변화가 있음
- 둘째, 도전은 각 국가가 통화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대응정책. 중국은 이미 부동산 혹은 기태 부분에서 통화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임. 어떻게 통화 인플레이션에 대응할지는 정부의 정책실행 능력에 달렸음.
- 셋째,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비교적 높은 것에 대해 우려. 중국은 농민공 실업 문제가 존재. 어떻게 민영기업,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지 할지 또한 중요한 도전 중 하나임.

5. 모건스탠리 회장 스티븐 로치 (Stephen S. Roach)

: 세계 경제는 이미 재고 증가로 인해 발생한 짧은 회복에서 벗어났음.

- 이러한 완만 혹은 쇠약한 회복은 어쩌면 더블딥이 숨을 고르는 상태일 수 있음.
- 사실상 현재의 회복과 과거의 강한 회복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러한 완충은 없었음. 세계 경제는 이미 재고 증가로 인해 발생한 짧은 회복에서는 벗어났음. 앞으로 3년간, 우리는 주요 경제체제의 회복 속도를 대략 3%로 예측.
- 충격은 쉽게 예측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충격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 중미간의 무역 마찰에 대해서는 사태가 한층 더 악화 된 추세라고 생각함. 위기이후 정부가 통화 및 재정 방면

에서의 안타까운 퇴출정책 역시 가능한 충격이라고 봄.

- 중앙은행이든 재정부문이든, 반드시 어떻게 특수한 자금정책의 퇴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 만약 전 세계의 앞으로 3년의 회복이 대략 3% 수준이라고 할 때, 무역 마찰 및 관리가 적합하지 않은 재정 정책은 정말로 충격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함.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더욱 더 균형 있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투자와 수출이 매우 중요. 하지만 중국의 내수 소비는 여전히 부족.
- 무역 마찰 혹은 퇴출 정책방면 같은 중국이 외부로부터 받는 충격의 영향이 큰 점을 어떻게 관리하는 가가 중국의 도전일 것임.

6. 청화대학교 중국 및 세계경제연구센터 주임 리다오쿠이(李稻葵)

: 금융위기의 변화는 선진국가의 국가 신용의 하락

- 현재 금융위는 이미 새로운 단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면적인 선진국가의 국가 신용의 하락 및 일부분의 선진국가의 주권 신용의 위기
- 현재의 세계 경제 패턴에는 세 가지 방면의 원인이 있음.

첫째, 현재 경제 발전의 주요 동력은 이미 선진 국가에서 신흥시장 국가로 전환하고 있음. 중국, 인도, 브라질, 칠레를 포함하여 이미 활발한 발전 국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간 발전 형세는 매우 좋음. 이 점은 전체 세계 경제 회복에 있어서 힘 있는 버팀목 역할을 제공할 것임.

둘째, 선진국가의 중앙은행은 사실상 현재 그들의 화폐정책은 느슨해진 상태, 또한 이미 새롭고 더욱 높은 화폐 인플레이션 시기가

왔음.

셋째, 비록 선진국의 주권 신용이 하락하고 있어도 재무 수준은 상승하고 있음. 하지만 수중에 대량의 주권과 부를 지닌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금융시스템을 믿고 있음.

- 중국, 일본, 어느 정도로 봤을 때 한국도 포함. 이러한 국가들은 선진국과 협력하기를 원하며 자신들의 주권 및 부를 선진국의 주권채무에 투자하기를 원함. 이는 선진국가의 경제 회복에 중요한 버팀목임.

7.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스펜스

: 위기 이후 다시 구성된 자산포트폴리오는 레버리지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 자산버블은 주기성을 가짐. 자산버블은 종종 여유 있는 신탁 정책 및 높은 레버리지율과 동행함.
- 우리가 현재 이러한 과정에 처해있는 것은 어떤 정도에서 민간부문의 레버리지율을 감소하고 있는 것임. 하지만 동시에 공공부문의 레버리지율은 상승.
-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고려해야 할 유일한 문제가 되어서는 안됨. 중앙은행은 금융부문 자산 부채 표 균형 문제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함.

8. 중국경제개혁연구기금회 국민경제연구소 소장 판강(樊綱)

: 중국의 올해 GDP 성장은 8-9%에 달할 것이며 자산 버블 관리가 관건이 될 것임.

- 중국은 과거 몇 년간 거시 조절대책을 시행해왔으며 중국의 자산

버블의 정도는 다른 경제체처럼 큰 버블정도는 아니었음.

- 중요한 것은 이런 번영기에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번영기에 반(反)주기적인 정책을 펴야 함.
- 중국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 올해 또한 8%~9%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또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작년처럼 정부의 지출이 아닌 시장능력에 의존할 것임 (부동산 투자의 증가, 기업부문의 투자 증가, 주민 소비의 증가)
- 올해부터 내년까지 중국경제는 또다시 새로운 번영기에 들어설 것임.
- 자산버블관리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전부터 고려해야 함. 첫째, 예견성. 버블이 형성되고 난 후에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조정을 해야 함. 중국의 중앙정부가 이미 실행한 조정 정책은 올바른 것.

둘째, 교과서적인 거시경제 정책이나 재정 화폐 이러한 정책 수단으로는 부족, 그밖에 금융정책이 필요, 심지어는 직접적인 수량 통제, 공급과 수요 두 방면의 금융정책, 담보대출 레버리지 통제 등 포함.

-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확실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음, 중국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자산버블.
- 중국은 이 번영을 잘 관리해야 함.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부동산 시장은 버블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는 시스템 상이 완비 되지 못한 점이 큼. 만약 내적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번영을 관리하고 자산버블 통제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

을 것임.

9. 노무라 증권회사 회장 Junichi Ujiie

: 중국09년도 주택대출의 빠른 증가에 대해 경계심을 가져야 함.

- 일단 버블이 확대되고 붕괴하면 심각하고 오랜 기간의 불경기를 야기. 중국의 부동산과 연관된 용자는 (주택대출도 포함) 전체 용자의 20%정도를 차지, 버블시기의 일본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준. 하지만 2009년 새로운 주택대출 규모는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양회에서 원자바오총리는 올해 정부는 통화공급 M2 성장률은 전년도 27.7%에서 17%로 낮출 것임을 밝힘. 이는 각종 가격이 더욱 더 명확하게 상승할 것을 고려한 정확한 목표로 칭할 수 있음.

10. 싱가포르 국립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정용니엔(鄭永年)

: 부동산 통제를 위해서는 정책상의 통제가 우선, 개인 자본을 규제

- 국가는 정책상의 사고의 맥락을 조정해야 함. 예를 들어 개인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규제해야 함.
- 부동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시 중국 뿐 아닌 화인사회에서 쉽게 사회적인 버블로 변할 수 있음.
- 첫째, 정책의 사고 맥락을 조정해야 함. 중국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경제정책으로 여김. 부동산은 사회정책임. 만약 부동산을 경제정책으로 여기면 부동산의 경제적 기능은 두드러질 것임. 둘째,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관계를 조정해야 함. 다음으로 중국정부의 사회성 투자를 늘려야 함. 끝으로 대량의 국유기업이 부동산으로 유입하는 것을 규제해야 함.
- 개인적 투기 또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 임.

11. 국가통계국 총이코노미스트 야오징위엔(姚景源)

: 2010년 중국 경제는 물가 상승 상태를 직면

- 올해 중국에 물가 상승의 압력이 존재,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 또한 존재.
- 이러한 국면을 야기 시킨 세 가지 주요 원인
 1. 수입성 인플레이션, 대량 기초성 상품가격의 변동은 중국의 가격 상승을 촉진 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수입성 인플레이션을 야기 함.
 2. 과도하게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는 전체 사회 가격상승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발생시킴.
 3. 중국은 구조의 최적화가 필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전히 발전 방식의 전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의 실행, 그중 가격 개혁은 매우 중요함.
- 중국2010년 인플레이션 야기한 요소 및 억제할 수 있는 요소가 동시에 존재. (1. 농업의 안정, 양식의 풍성한 수확, 2. 일부 은행업의 생산능력의 과잉은 가격 상장 및 인플레이션 발생을 억제)
- 개혁개방 이후의 인플레이션 특징을 관찰한 결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경제과열 2.농업 3.통화 및 신탁의 과다 방출
- 이상 세 가지가 동시에 출현하게 된다면 중국도 인플레이션을 피해 갈 수 없음.
- 현재 채소, 과일 및 식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이 주력해야 함.(1.

기후 요소를 고려, 2.춘절 요소)

12. 중국 국무원 방전연구센터 금융연구소 소장 夏斌(시아뎐)

: 중국경제 붕괴에 대해 반박- 거시경제 조절은 경제 성장을 보호

- 올해 들어 중국 자산 시장 버블이 사라지고 중국 경제는 붕괴할 것이라는 여론이 출현했음. 동시에 인민폐 평가절상을 요구함.
- 서양의 경제학의 개념으로 중국의 경제 문제를 연구할 수 있고 경제학의 프레임으로 경제 프레임을 분석할 수 있으나 중국의 경제체제는 서양의 경제체계와는 다름.
- 중국인민은행은 미국은행처럼 자극정책을 채택하였음. 작년 중국의 거시정책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 첫 번째로 효율적으로 경제 성장을 단단히 굳혔고 두 번째로 라틴아메리카의 대규모의 상품의 수출 국가 및 태평양 국가의 무역 성장을 이끌었음.
- 중국의 자극 정책은 세계 경제의 쇠퇴에서 회복으로 향하는데 있어서 확실히 큰 공헌을 했음.

13.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 노벨경제학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 새로운 저축 시스템을 창조할 시간이 다가왔음

- 경제 불균형을 새로운 위기의 폭발을 야기, 이러한 문제들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저축 시스템 등을 만들어야 함.
- 지금까지 일부분의 국가의 생산량은 소비량을 넘어섰음. 무역 흑자 과정은 세계 총수요의 피로를 더욱 심각하게 야기..
- 경제 불균형은 위기가 발생의 원인은 아니지만 새로운 위기의 폭발

을 야기할 수 있음.

- 전 세계 경제 불균형의 원인 두 가지: 첫 번째로 미국의 과도한 소비, 동시에 세계 다른 국가들의 과도한 저축 또한 하나의 원인임. 두 번째로 수출 유도의 경제성장 패턴이 전 세계 불균형 야기.
- 만약 중국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리고, 하지만 이러한 소비가 정말로 미국으로부터의 혹은 미국으로부터의 더욱더 많은 생산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전환하지 못할 경우, 전 세계는 쇠퇴의 위험을 직면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이러한 전 세계 경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력을 높이고 순환적으로 저축을 이용해야 함.
- 전 세계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미국은 저축을 늘리고 중국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

14. 교토대학명예교수 국제경제학회 회장 아사히마사히코

: 도시로 이동하는 농촌 인구에 대해 중국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

- 중국은 현재 농촌경제가 도시경제로 이동하고 있는 과도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할 것임.
- 현재 중국은 농촌 경제가 도시 경제로 이동하는 과도기.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진행되어야하며 앞으로 더욱 많은, 더욱 많은 비율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해야 함.
-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일본과 한국이 성공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음. 중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세 가지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첫째, 도시화 진행 과정의 실현, 뿐만 아니라 현대 산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 동시에 중국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서비스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

- 둘째, 중국의 빠른 도시화 진행과정에서 정부는 공공교육, 도시 및 도시간의 교통, 의료위생, 환경통제, 쓰레기 처리, 질병 예방 영역에 대량의 투자를 해야 함.
- 셋째, 농촌인구로의 출생률 이동을 통제해야 함. 중국은 예전 확실히 1인당 평균 수입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음. 하지만 이런 인구 통제 정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농촌인구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으며 발전의 성과는 모든 사람에게 돌아 갈 수 없게 됨.
- 중국은 미국이나 기타 국가들의 경험을 본 보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국가경제 간에는 동시에 서로 보각되는 관계도 존재. 우리는 무역관계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런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문제 해결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됨.

15. 제이콥 프렌켈 JP모건 체이스 회장

: 환율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첫째, 종종 계좌의 이윤의 불균형한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 또한 전 세계 범위안에서 불균형이 누적된 시간은 이미 오래 되었음.
- 우리는 예전 이러한 긴 시간동안 이러한 누적의 과정을 간과했으며 이러한 것들은 각 그룹 혹은 어떠한 국가들, 미국을 필두로 한 그룹, 아시아의 중국, 일본 1위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예금을 방면에서 모두 다른 상황을 지니고 있음.
- 종종 계좌 방면에 있어서 걱정이 될 때, 양국의 환율만 보아서는 안 됨.
- 인민폐 환율을 오랜 시간동안 고정되어 왔고 이후 인민폐는 평가

절상 되었으니 최근 한동안은 다시 안정되었음. 사람들은 중국이 이미 환율을 통해 만든 자산을 축적했다고 불평함.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관점.

- 우리는 양국의 관계를 봐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에게 이렇게 무역 흑자인지를 봐야 함.

- 지금까지 중국이 유럽연합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5%로 이 비율을 아직까지도 상승하고 있음. 기타 국가의 수입 또한 이러한 규칙으로 이 과정에는 일종의 취약성이 있음. 이러한 취약성은 바로 현재 외국이 미국의 국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특히 중국과 같은 국가는 25%의 미국 국채를 지니고 있고, 두 번째로 많이 지닌 나라는 일본.

- 전 세계 범위 내에서 예금율 방면은 아직까지 차이를 지니고 있음. 현재 미국은 적자이고 중국은 흑자 임. 우리가 우려할 때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은 확실히 알아야 함.

1.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 세 힘 있는 국가가 되었음.
2. 상대적으로 미국과 EU 같은 일부 국가들 GDP 증가,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GDP는 대폭 하락하고 있음.

- 이자율을 보았을 때 현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더 이상 사용할 탄약이 없음. 재정부채 또한 높고 실업률 또한 매우 높음.

- 높은 실업률은 보호주의를 필요로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국제적 호소를 무시하고 있으며 많은 무역 보호주의가 등장했음. 무역은 위협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일종의 기회로 여겨야 함

16. 국무원 발전 연구 센터 대외 경제 연구부 부장 롱궈강 (隆國強): 중국 경제 개방 정도는 전 세계의 평균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음. 전 세계 제 5위

- 중국의 경제의 개방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수를 하나 만들었음. 해당년도의 유동량과 해당년도의 고정자산투자를 비교 했으며, 유입 혹은 유출의 보유량과 GDP를 비교, 각각 분자, 분모로 놓았을 때 네 가지의 다른 지수가 나타남.

- 개방도와 전 세계 평균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세계의 평균 수준은 1이 아님. 만약 어떠한 경제체의 지수가 1보다 높았을 경우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이고, 1보다 낮았을 경우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것임.

- 계산에 따르면 화물무역 개방에서 가공무역 수입을 중복 계산하여 포함했을 경우 중국은 세계 평균 수준 보다 낮으며 전 세계 17위.

- 가공무역의 수출입을 포함하지 않았을 경우 전 세계 7위, 자본 개방 정도는 전 세계 10위.

- 중국의 경제 개방 정도는 전 세계 5위. 이 지수를 기초로 몇 가지의 기본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음.

1. 중국의 경제 개방도 지수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세계 평균 수준보다 매우 낮으며 각 항목별 지수 또한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전 세계 5위.
2. 다른 지수로 보았을 때, 중국의 대외 투자지수와 세계 평균 수준을 비교해보면, 차이는 0.12로 제일 큼. 두 번째로 외자유입 0.44, 다음으로 화물무역 0.69, 마지막으로 서비스 무역 0.98.

- 중국의 종합 국력, 국제 경제력은 매우 큰 변화가 있었음. 비록 최근 10년간 중국의 개방은 아직도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재의 개방은 이미 명확하게 정제되어 있음.

17.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 Dwight Perkins

: 중국은 수출의 의존한 경제 성장을 줄여야 함

- 중국의 문제는 수출 추진성 성장의 의존을 줄여야 함.
- 중국의 소비는 과소평가되었음. 이러한 형세에서 볼 수 있듯이, 1인당 수입의 증가가 GDP 증가 보다 낮으며 가정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결과를 초라 함.
- 중국은 대량의 잉여 노동력을 지니고 있고, 1인당 수입을 비교적 낮게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의 가정 소비의 첫걸음 수준은 높지 않음.
- 하지만 이는 여전히 가정 소비가 하락하고 있음을 의미. 동시에 높은 예금률 배후의 문제, 전체 수입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며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음.
- 작년에 일어났던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처음 국유기업 투자의 증가 있었으며 동시에 정부 투자 또한 거대한 자극적 계획이 있었으며 중국의 무역 흑자는 매우 높았음. 하지만 확실히 어느 정도 하락했음.
-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충분한 지출을 유지하고 경제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임. 만약 중국이 수출 흑자를 줄이는 대책을 실행 한다면, 2008년, 2009년 매우 높았던 GDP 증가율의 일부분을 도려내게 되는 것임.
- 또한 직접적으로 주민소비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됨. 주민들을 격려하여 저축을 줄이게 하는 것이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중국의 경제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임.

- 따라서 중국이 현재 직면한 혹은 언급하고 있는 나머지 선택은 바로 현재 나타난 수요의 영역을 유지하는 것, 혹은 중국 정부가 투자를 진행하는 것.
- 중국정부는 이미 많은 정부의 투자를 진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할 것으로 보임. 일부분의 투자는 효율이 매우 높을 것이며, 일부의 정부 투자는 개인부문의 투자에서 상응하는 반응을 가져올 것임.
- 하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 중국의 부패 문제에 관해서도 커다란 도전을 직면했으며 수요 방면에서도 변화가 완성될 때까지, 급여 수준이 상승할 때까지, 소비 수준이 상승할 때까지 지속적인 성장 유지가 필요하며 비로써 투자를 줄일 수 있음.